

청문회 그이후

강산에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들과 달리 백성의 마음을 담담하게만 하던 청문회가 끝났다. 우리 사회에서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 대중 위에 군림하던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청문회에 불려나가 쏟아놓은 말들은 어떤 결과를 남겼는가?

정치인들의 추한 모습

김영삼 대통령의 둘째아들 현철씨의 친구들이 구속되고 죄없는 한 은행가가 목을 매 자살하고, '거물급'을 자랑하는 정치인들의 추한 모습이 드러났다. 현철씨의 구속도 검찰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중언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합리화하는가 하면, 질의자인 국회의원들이 송방방이만을 휘두르는 바람에 '이 따위 청문회를 더 해서 뭐 어차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 현정사상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청문회는 부정적 측면도 많았지만 기여한 바도 적지 않았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김영삼 정권의 부정과 부패, 독선과 정치철학의 부재, 민족문제에 대한 무지와 무모한 대북정책이 대중의 눈에 그렇게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문회가 막바지에 이른 무렵, 92년 대통령선거 때 민주당 경리부서의 간부였던 인물이 출린 천문학적 대선자금설은 김대통령을 최대의 정치적 공지로 몰아넣었다. 이것도 청문회 정국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번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백84억원의 빚에 내는 1천억원 이상을 썼다는 말이 진실로 판명된다면, 아니 야당의 주장대로 1조원이나 되는 돈을 뿌렸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김대통령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법원이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씨 재판에서 '현직 대통령의 범죄는 형사처벌하기 어려우므로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한 것'으로 보고 임기가 끝난 뒤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리차 김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지 않았는가?

김대통령과 현철씨의 앞날을 바로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미래는 재쳐두더라도 오늘 당장 가라앉아 가는 배의 독소가 검출됐다.

에서 몸부림 치는 기관사나 다른 없는 처지이다. 임기만의 대통령을 가리키는 '절름발이 오리'라는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 할 정도로 대통령의 힘과 권위는 약할 정도로 약해져버렸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김삼' 운운하면서 신한국당 총재가 대통령 후보로 짐작 해주기만을 기다리던 정치인들이 노골적으로 현철씨를 비난하는가 하면, 대통령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려 든다. 심지어는 대통령과 수십년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는 민주당계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경제이다. 원리금 갚아도 비싸 악성 외채를 얻고 또 얻어야 하는데도 실업자는 날이 갈수록 늘고, 부도내는 재벌이 꼬리를 물며, 중소기업은 하루에도 몇십군데씩이나 문을 닫고, 봉급생활자들은 감원 위협과 줄어드는 월급봉투 앞에서 잔뜩 오그라들고 있다.

이런 판이니 '대통령은 4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원성이 나오지 않을 리 있는가? 하물며 민족문제에서는 통일로 다가가는 커녕 원한과 갈등만을 잔뜩 키워버렸다. 북한 권익이 많다고 굶어 죽어가는 동포들에게 밀가루 보내는 것도 막다가 얼마전에는 조금 빚장만 열었으니 그 매정함은 어떻게 변명하랴.

김대통령과 아들은 어떻게 보면 안쓰럽지만,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들의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은 밝은 미래가 아니라 책임 추궁의 심연이다.

역사와 현실을 보는 눈

역대 대통령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런 길을 걸어간다면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는 빛이 없다. 대통령 마음 먹기에 따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통일이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다. 이렇게 막중한 대통령을 뽑는 데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한 것은 후보의 자질과 경력과 능력보다는 출신지역이었다. 이제 여당도 안남은 12월 대선에서도 그런 일이 되풀이 될 것인가?

역사와 현실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민에게는 희망이 없다. 희망을 세우려면 '나와 너' 모두가 남마다 역사와 현실을 바로 보는 눈을 조금씩 펴야 한다.



김종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도박 나라경제 좀먹는 망국병

기업인등 150억원 밀반출 적발 여의사 평생모은 43억 탕진

도박이 판을 치고 있다. 지난 한달새 적게는 7억원에서 많게는 9백여억원대의 도박을 벌인 사람들이 줄줄이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4월 29일 해외에서 카지노 도박장을 개설, 관광객을 상대로 도박관을 벌여 국내에서 최소 1백50여억원을 밀반출한 카지노업자와 환전상, 폭력배 및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기업인 연예인 등 3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3천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7백억~9백여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카지노에서 자금을 탕진하고 필리핀에서 도박생활중인 유명 코메디언 황모씨 등 9명을 수배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8일 일대대 사무실에 비밀도박장을 열고 7억원대의 포커도박을 해온 의류도매상 등 7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유명인사학원장 3씨는 일본의 관광지까지 오가며 내기골프와 내기바둑에 빠졌다. "재미삼아 1만원씩 내기골프를 한 것이 한달 5억원 관돈의 내기바둑으로 발전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의해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3씨의 뒤늦은 후회였다. 지난 3월 18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4개월간의 수사 끝에 여의사로부터 43억원을 도박으로 갈취한 전문도박단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산부인과원장인 여의사를 꼬여 도박관에 끌어들이고 돈을 갈취하고 폭력배를 시켜 노름빚값으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남편은 쇼크로 쓰러져 숨졌으며 평생의 모은 재산은 물론 남편까지 잃고 말았다.

정성운 기자

특교의 눈 "이겨도 저도 패가망신"

백산신경정신과 최훈동원장은 "한번 빠져들면 가정파탄 사실 등 반사회적 행위로 이어지는 중독성이 있는 것이 도박의 특징"이라며 "사교적인 수준의 내기로부터 도박이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또 "중독과 욕구의 자기절제와, 이를 위한 교육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목스님(남양주 동원정사 주지)은 "도박은 자기파멸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며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는 자정과 수행으로 탐욕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도박의 위험성을 여러 경전에서 지적하고 있다. "재산을 탕진하는 여섯 가지 길이다. 술에 빠지는 것, 도박에 빠지는 것,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는 것, 그리고 계엄령을 피우는 것이다." (산생지경) <장아함>에서는 도박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에게 여섯 가지 위상이 있느니라. 이기더라도 마음을 사게 되고, 지게 되면 재산을 잃어 슬픔에 빠지며, 재산이 줄어들고, 법정에서는 그 말에 무개가 없게 되며, 친구가 권총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혼담에 지장이 있게 되느니라."

지계

금주

파계

비무장지대 남북경작 제의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의 유휴지를 공동경작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제정호연구원은 4월 28일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DMZ 아의학술회의'에서 '비무장지대와 평화조성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45년간 방치돼온 비무장지대의 농경지를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경작해 공동이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미 클린턴대통령이 건물벽 너머를 지우기위해 페인트칠을 하고있다.

화학무기금지협정 발효

화학무기의 생산 비축 사용을 금지하고 궁극적으로 전량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화학무기금지협정(CWC)이 4월 29일 발효됐다. 164개국이 서명하고 그중 84개국이 비준했다. 한국도 28일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 이 협정은 회원국들에게 농약과 폭동진압용 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무기와 생산설비를 2007년까지 제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경제살리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대병원 과장급 이상 관리자 1백여명은 4월 28일 침체에 빠진 국가경제 극복과 사회분위기 완원을 위해 올해 임금인상분 전액을 병원에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 병원 과장급 이상 보직자 전원은 이날 임금인상분 전액을 반납했다

팀모아 치매요양센터 기증

서울 리츠칼호텔 직원 2백여명이 지난 2년여 동안 손님들에게 받은 탑을 모은 6백74만2천원을 치매노인 요양센터에 기증했다. 이들은 95년 3월부터 손님들이 봉사료 외의 탑을 주면 '탑상자'를 만들어 모아왔다.

치매노인 강가에 '고려장'

치매노인이 아들에 의해 버려졌다. 4월 28일 경북 경산시 금호강변 텐트에서 노숙하던 정모씨(87·여·대구 신암동)를 발견한 청천과출소에 따르면, 치매증세가 있는 정씨가 지난해부터 며느리와 잦은 갈등을 빚자 이를 고민하던 아들이 간단한 취사도구와 이불을 주고 28일 밤 이곳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초등생 살해 몸값요구 10대

경북 칠곡경찰서는 4월 29일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른 고교생 7명 등 10대 12명을 긴급 구속했다. 이들은 또 피해학생 학부모인 이모씨(47)가 꾸짖자 갑자기 흉기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25일에는 초등생을 살해하고 몸값을 요구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학총장이 등록금 빼돌려

광주예술대 설립자 이흥하씨(서남대총장)가 산하 7개 대학과 고교에서 2백여억원대의 등록금 등을 빼돌렸다. 광주지검은 4월 29일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금액으로 병원을 인수했으며,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분유 고급우유로 둔갑

일부 유명유가공업체들이 생우유(시유)가 아닌 수입혼합분유로 만든 가공우유 제품을 마치 고급 생우유제품처럼 보이도록 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4월 27일 소비자단체들은 이것이 사실인 경우 해당회사 모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밀도살 한우 20억대 유통

생체검사 도축검사 지육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밀도살한 한우고기 21억원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도축업자 등 6명이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은 충남 논산과 광주 등의 우시장에서 소를 사들여 밀도살한 뒤 생고기 전문점 등 고급음식점에 공급해왔다.

팔당호 오염 13년만에 최악

팔당호의 수질이 13년만에 최악의 오염도를 기록했다. 4월 29일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수질악화 원인은 비로, 퇴비성분 등의 유입이 늘어난 때문이다.

수산물 신체마비 독소검출

서울시가 최근 가락시장에서 판매되는 조개류 41건에 대해 '마비성 폐독' 함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무산 생굴 2건과 남해산 바지락 등 3건에서 기준치 이상의 독소가 검출됐다.

Advertisement for 'Bulgyo and Munwa' magazine. Features text about the magazine's content, including '97년 봄호 주요목차' and '지상논쟁'.

Advertisement for 'Jangnipsan' (장뇌산삼) ginseng products. Includes an image of ginseng roots and text describing the benefits of the product.